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(02-2100-2530)	담 당 자	박 정 원 서기관 (02-2100-2533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(한국경제 11.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- “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원칙을 세웠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